



천국시민 양성 · 만민에게 전도 · 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이 종 윤

Rev.

Lee Jong-Yun, Ph. D., D.D.



135-835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10

210 Daichi-dong Kangnam-gu Seoul, Korea

Tel, 558-1106. Fax.558-2107, <http://seoulchurch.or.kr>**"아침에 보니 레아더라"**

(When morning come, there was Leah!)

■ 창세기 29장 16-30절

오늘은 2008년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해를 돌아보면서 이 한해가 나에게 있어서 어떤 한 해였는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야곱을 통해 살펴보는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깊은 기도의 체험이 없었습니다. 그는 환난을 통해 땀에서 기도의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세상의 잔재로 인생을 살려고 했습니다.

I. 속이는 자는 자신도 속게 됩니다.

①야곱은 어머니 리브카와 함께 아버지인 이삭을 속였습니다. 즉 자신의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은 외삼촌인 라반으로부터 속임을 당하게 됩니다. ②야곱을 속이기 위해 라반은 라헬을 속였으며, 후일 라헬은 자신의 아버지인 라반을 속이게(드라빔사건) 됩니다. ③야곱은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빼앗아내기 위해 팔족 한 그릇으로 약속배론 상술을 썼습니다. 하지만 라반은 야곱의 삶을 열 번이나 변개시키면서 자기의 이득만 챙겼습니다. ④야곱은 염소들로 자기의 팔족과 목덜미를 감고 음산까지 변조 시키기면서 아버지 이삭을 속였습니다. 후일 야곱은 아들인 요셉이 짐승들에게 물어 찢어 죽었다는 아들들의 속임에 속게 됩니다. ⑤형 에서의 웃을 입고 아버지 이삭을 속인 야곱이 라헬의 웃을 입고 야곱을 속인 레아에게 속았던 것입니다. ⑥"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창29:25절) 남을 속이는 자는 자신도 속게 됩니다. 오늘 진실과 정의보다 잔피를 부려 목전의 이익만 행하려는 술책으로 인생을 살아가려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거짓말 하는 자들은 불과 유형으로 타는 못에 던져져(계12:8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계21:27절)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약속은 손해가 나도 지켜야 하며 거짓 없는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II. 하나님의 심판 날에는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창29:25절) ①오늘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으나 불꽃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갈6:7절). 오늘 선악간에 하나님 앞에서는 드러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갈6:9절). 하지만 속이는 방법이 아닌 진실함으로 한다면 반드시 산한 열매를 거두는 날이 오게 됩니다. ②예 야곱은 레아를 안고 라헬로 착각했겠습니까? 첫째, 야곱의 부주의 때문이었습니다. 둘째, 라반과 레아의 간계 때문이었습니다. ③라반은 야곱을 속였습니다. 그러나 후일 라반 자신은 라헬에게 속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누가 자신의 죄를 감출 수 있습니까? 오늘 잔능하시고 전지하신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온 심판주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모든 것이 사실대로 밝혀질 마지막 심판 날이 있을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III. 느림입니까? 사실입니까?

오늘 레아를 안고 라헬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①우리 주변에는 허풍철학의 레아를 안고 기독교의 라헬이라고 착각하고 고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②우리 주변에는 학교를 살피고 가르치면서 욕영사범하는 교육자로 착각하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③외장단상에서 외치거나 신본상 정치가로 남의 등거죽을 빗기면서 자칭 애국자라고 착각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④재물과 명예의 레아를 농칠새라 그것이 라헬이라고 부둥켜안고 소리치는 이들도 있습니다. ⑤옛 습관과 이념의 레아를 사랑하는 라헬로 알고 간직하고 지켜 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⑥산학공부도 했고, 교회의 직분도 있으니 구원은 받았다고 착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맺는 말

오늘 지나가는 2008년도를 성공적인 삶이었다고 느낌으로 주장하지 말고 죄와 허물을 통렬하게 회개하고 진실하시고 정의로 우신 하나님 앞에서 이 해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우리 서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주 이종윤 목사 설교요약)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 (매일)	본당 Ⅱ층
주 일 예 배	Ⅰ 부	가 족 예 배	오전 9시 - 9시 50분	본 당 Ⅱ,Ⅲ,Ⅳ층
		분 반 공 부	오전 10시 - 10시 30분	
	Ⅱ 부	일 반 예 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 12시 30분	
	Ⅲ 부	(경배와찬양) 청 년 예 배	오후 1시 30분	
			오후 2시 - 3시 10분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20분	웨스트민스터 홀
	찬 양 예 배		오후 5시	본 당
어린이 찬양예배		오후 5시	101호	
수 요 예 배	Ⅰ 부 예 배		오전 11시	본 당
	Ⅱ 부 예 배		오후 7시	Ⅱ,Ⅲ,Ⅳ층
	어린이 수요일예배		오후 5시	603호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30분	웨스트민스터 홀

교회학교 안내

부	서	분반공부시간	장 소	부	서	분반공부시간	장 소	
영아부(0세-12개월)	Ⅰ부	오전 9시	영아부 403호	장 년 부	Ⅰ부 (30대)		오전10시	401호
		Ⅱ부 (40대)			오전10시	301호		
유아부(13개월-4세)	Ⅱ부	오전11시20분	유아부 706호		Ⅲ부 (50대)		오전10시	401호
		Ⅳ부 (60대)			오전10시	301호		
유치부(5세-7세)	Ⅲ부	오후 2시	유치부 702호		Ⅴ부(70대이상)		오전10시	603호
		사 랑 부		오전10시30분	102호			
유 년 부	오전 10시		701호	에바다부	Ⅰ부	오전11시20분	603호	
초 등 부	오전 10시		101호		Ⅱ부	오후2시		
중 등 부	오전 10시		501호	English Bible Class		오후12시30분	101호	
고 등 부	오전 10시		601호	새 가 족 부	Ⅰ부		오전10시	602호
대 학 부	오후 3시20분		701호		Ⅱ부		오후12시40분	
청년 12부	오후 3시20분		603, 601호		Ⅲ부		오후3시20분	
대학부 토요일집회	오후 4시		501호		학습 준비반		오전10시, 오후12시30분	602호
청년12부 토요일집회	오후 5시		603, 601호		세례 준비반		오전10시, 오후12시30분	609호
디아스포라부	오후 1시		903호	요리문답부		오전10시, 12시40분	801호601호	
신앙강좌Ⅰ·Ⅱ부	오후 12시40분		901·701호	신혼가정부		오후3시20분	702호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T V	위성 채널 412 (CBS 기독교 방송) 매주 주일 오후 9시 (케이블 채널 시청가능지역 있음)	KISB 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 : 매주 월요일 오후 1시30분 (한국시간)
		케이블 채널 42 (CTS 기독교 TV) 매주 월요일 오후 1시 30분	
	라디오	HLKY 98.1 MHz (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요일 오전 5시 35분	
		HLKX 106.9 MHz (극동 방송) 생명의 빛으로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인터넷	기독교 TV : http://cts.tv CBS인터넷설교 : http://cbs.co.kr 중국어인터넷 : http://c-highway.com	
	서울교회 홈페이지	http://www.seoulchurch.or.kr	

부 목 사 이규정 한상은 서명철 정수길 장석남 노한상 황 광 백영진 문영훈 교 육 목 사 임규현 이태훈 영어목회담당목사 Joshua Cho 협 동 목 사 김영한 김재진 김은수 김철홍 학원선교전도목사 황선철 선 교 사 강아름·주하나, 서홍익, 권유·조에스터(동아시아), 전광해(서아시아), 아은준·강혜정(카자흐스탄) 스토티로마리아·조남혜(방글라데시), 이재율·박병진,박진아·전진희(캄보디아), 조병연·김희정, 우상식·김정욱(인도)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손신일·민매라(체코), 이재훈·박재연(마다가스카르), 김용진·황경혜(말라위) 이항명·손해신(이스라엘), 김영호·서향정(러시아), 이경원, 김태식(군선교), 김종일·백승미(타기노동자) Thawng Ngeih Mang·Zam Sian Tuang·Zing Nawn, Ram Cung·May Kya(미얀마)	전 도 사 지혜영 교육전도사 박광일 김은숙
--	--

새출발을 하면서

지난 일들을 생각해 보면 아름다운 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슬프고 괴로웠던 일들도 기억에 남아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대개의 사람들은 지난 일들을 아름다운 추억으로 미화해서 생각하고 그것을 사모하려는 경우가 많다. 그것이 보잘것없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꿈속의 유토피아처럼 승화시키고 지난날의 조그마한 성공과 자랑을 되씹으면서 삶의 전진보다 답보를 하고 있다. 반면에 지난날의 술한 허물과 실패 때문에 수치와 좌절에 빠져 무기력한 실의에 빠져 있는 이들도 있다. 과거에 대한 이 같은 노스탈자는 미래를 향해 새 출발을 하려는 소망의 삶에 해로우면 해로웠지 유익이 없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옛적 일을 기억치 말고 생각지도 말라고 했다.

우리는 지금 대망의 2009년을 시작하는 새해의 첫 발을 내딛고 있다. 지나간 어제까지의 생활이 옥된 것이든 영광스러웠든 간에 모든 것을 과거사로 묻어버리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 주님의 성찬에 함께 참여하기 위해 오늘 영어예배와
에바다부 예배를 별도로 드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찬 양 예 배

	시 간 Time	인 도 Presider	기 도 Prayer
I	오전 9시	이규정 목사	이규정 목사
II	오전 11시 20분	한상은 목사	김광신 장로
III	오후 2시	서명철 목사	노문환 장로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에의 부름 Call to Worship	고후 5:17...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찬 송 Hymn	3(2) 다 함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함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1,2,3부 ... 다 함 께
(십계명)	
* 송 영 Doxology	1(1)..... 다 함 께
기 도 Prayer	말 은 이
찬 송 Hymn	216(356) ... 다 함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갈 5:13, 요13:12-17...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함 께
* 헌 금 Offering	다 함 께
* 봉헌송 Offering Hymn	634(70) 다 함 께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설 교 자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함 께
설 교 Sermon	"섬겨야 합니다" 이종운 목사
(“We should serve”)	
성찬식 Holy Communion	집 레 자
* 찬 송 Hymn	212(347)..... 다 함 께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함 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오후 5시

· 인도, 설교: 이종운 목사

목 도	다 함 께
성 시	시 29:1-2 인 도 자
찬 송	31(46) 다 함 께
기 도	김현관 집사
찬 송	426(215) 다 함 께
성 경	롬 12:1-2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까?" 설 교 자
순결서약식	집 레 자
특별찬양	말 은 이
* 찬 송	213(348) 다 함 께
* 축 도	인 도 자
* 주기도송	다 함 께

수 요 예 배

I 부 오전 11시

II 부 오후 7시

인도, 설교: 이종운 목사

기 도	I 부: 아은희 권사, II 부: 윤갑숙 권사
성 경	시 114:1-8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하나님 면전에서 길을 만들라" 설 교 자

청지기 수련회

오전 5시

피아니스트: 한현숙 · 홍혜란

설 교 담당 목사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30분

설 교 이규정 목사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 음악감독: 이 영 조

예 배	찬양대	연 주 곡 명	작(편)곡자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I 부	가브리엘	주의 이름 영화롭다	E. K. Heyser	김정희	강민정	백송희	박광서
II 부	할렐루야	해가 뜰 때부터	Elwood Coggin	고성진	오지경	김현주	박광서
III 부	임마누엘	축복	H. R. Evans	류종기	김윤지	김복희	구슬희
찬양예배	베들레헴	언제나 주를 찬양	Grace Balson	김정호	김윤지	홍혜란	구슬희
영어예배	예루살렘	성찬식					
수요 I 부	은 빛	그리운 분향	Arr. E. J. Lorenz	박래경	김윤지	홍혜란	
수요 II 부	시 온	찬양의 소리	H. Smart L. Mason	백경화	이순재	오성태	

<헌금송>

I 부	유 년 부	아멘! 주 찬양	Ernie Rettino	김지현	박재원
II 부	그레이트헌드렌	I am thine O Lord	Linda R. Lamb	송재월	
III 부	아멘관현악단	Come thou fount of every blessing	Tred, American Melody	임범창	임이름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 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성 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성 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김병용	13-16	이삭	본인	박종권	11-7	안드레	장인원	이강인	12-15	대학부	윤찬오
이세영	13-16	한나	김병용1	윤홍석	1-18	안드레	본인	야현석	11-5	대학부	박이선/서명희
이명산	12-15	엘리아	본인	김윤정	1-18	루디아	본인	송혜경	13-19	고등부	신도섭.김영숙
신차욱	12-15	마리아	윤찬오	김재형	13-16	제1청년	본인	송우철	13-19	중등부	신도섭
김인혜	13-26	보비	본인	박관택	14-18	제1청년	본인	윤원식	교육1국	초등부	본인
김마에	13-11	보비	임병숙.최금봉	이강현	12-15	제1청년	본인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앞면에서 계속

- 9. 기도실 이용안내** / 기도과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교회는 교회당 3층에 기도실을 설치하여 성도 여러분이 항상 기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성도 여러분의 많은 이용바랍니다. (· 호실: 302-306호 · 이용시간: 오전 9시 - 오후 10시)
※ 단, 기도하는 것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 10. 상담 안내** / 법률, 세무, 병무, 교육, 가정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11시 30분-오후 1시 (302-303호) ※ 전화 예약 010-5779-1329
- 11. 의료 상담** / 정형외과(이지동), 내과(민효영)
주일 오후 1시 902호에서 의료 상담 및 진료를 합니다. ※ 전화 예약 : 011-9950-5597
- 12. 주차 안내** / 새가족이 주차할 곳이 없어 그대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
교회 종착지들은 대체여 사거리 '강남구민회관' 주차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결 혼

1. 전용운 군(15교구 전광영 집사, 김인숙 권사의 처남)과 김해론 양/ 9일(금) 오후 6시 서울교회

우리의 비전(vision)

-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새출발의 논리

새해가 되었기 때문에 새출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새사람의 가치관과 목적을 갖고 시작을 할 때 새출발이 가능해진다. 시간이 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가고 오는 것이므로 질적 변화가 없이 시간의 변화로만 새출발을 할 수는 없다.

새출발을 하려면 과거에 붙잡혀 너무 슬퍼하거나 아니면 자랑만 해서는 안 된다. 나약한 노스 탈자는 새출발의 결단을 마비시키는 독소에 불과하다. 그러하고 과거는 무의미하고 무가치하다는 말은 아니다.

우리가 바라는 궁극적인 기점은 과거나 현재의 조건보다는 미래 비전이 있기 때문에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현재를 결단해야 한다. 거기엔 믿음이 있어야 한다. 믿음이 없이는 소망도 전진도 출발도 없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이다.

-이종운 목사 신앙 컬럼 '순례자'에서-

**청
결
유
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힘씁시다.
교회에서 음식물 섭취는 만나 홀(801호)에서만 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절 약**

불필요하게 전기를 켜놓은 복도와 화장실 전등을 끄시다.
방을 사용한 후 나올 때 반드시 전기(전등, 플러그, 마이크 등)를 끄고 나오시다.

**주
일
성 수**

주일은 예배와 전도하는 날입니다.
가급적 회의를 줄이시고 예배와 전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